

韓國美術史學會가 考古美術同人會라는 이름으로 發足된 것은 一九六〇年 八月 考古美術第一號를 내면서부터였다. (創立會員 金元龍, 全盛弼, 秦弘變, 崔淳雨, 黃壽永) 그 무렵 우리들은 學報를 活版印刷에 붙일만한 形便이 못되었으므로 月刊 壹百部限定 騰寫版 學報를 내기에 은회를 기우렸었다. 이 學報本文에 걸드러진 그 많은 圖版寫眞들은 同人들이 적은 필름을 손수 現像 印畫해서 하나 하나 폴로 부쳐야 되는 번거로움과 發送封套를 써서 郵遞局에 갖아가는 일까지 모두 손을 나누어야만 되었다. 그렇게 해서 한호도 거르지 않고 이 月刊誌 一〇〇號를 내놓은 것이 一九六八年 十一月이었다. 우리는 이 百號를 契機로 해서 考古美術同人會를 韓國美術史學會로 改編發足하고 學報「考古美術」도 油印 月刊에서 活版印刷 季刊으로 革新을 보게 되었다. 이 油印 月刊 百號까지에 실은 論考는 總數 八三五篇에 이르렀고 그 大部分은 同人들의 손수 調査한 새 資料를 다룬 것이었기 때문에 이 油印考古美術은 號를 거듭할수록 學界의 注意를 끌게 되었고 同人들의 幅과 그 活動 또한 한층 늘어나서 油印物로서는 學界와 會員의 慾求에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不過 數十面으로 짜내야 되는 油印物이었던 까닭에 論文의 原稿는 張數의 制限이 엄격했으므로 매우 壓縮된 형태의 짧은 論攷들이었음은 避할 도리가 없었다. 資料紹介에 끝이는 短稿도 많았던 것은 그러한 까닭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一〇〇號까지에 담겨진 豊富한 새 資料의 活用に 不便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이 合輯刊行을 바라는 분들이 적지 않게 된 것이다. 이 合輯刊行도 시작하고 보니 수월한 일이 아니어서 일을 맡은 通文館에는 해를 거듭하는 勞苦를 끼쳐왔고 이 일이 이렇게 成事되기까지 우리 學會로서도 여러해 동안 懸案 문제였었다. 이 合輯刊行에 즈음해서 생각나는 일은 이미 他界하신 두 분에 대한 추모이다. 즉 創立會員 潤松 全盛弼先生과 陰으로 陽으로 本會의 發展에 마음을 깊이 쓰신 東濱 金庠基先生에 대한 아쉬움이며 月刊 一〇〇號에 達하는 油印學報를 내기에 젊은 情熱을 쏟아준 鄭永鎬, 孟仁在, 李浩官, 文甲洙, 金正基, 金和英, 申榮勲, 金禧庚, 鄭明鎬, 鄭良謨, 李准求, 李永樂, 金光洙 等 會友의 誠心과 勞苦이다. 特別 鄭永鎬教授는 「되ziel 機關車」라는 別名이 불을만큼 그 中軸活動을 해주었으며 張衡植同志는 이 油印學報를 내는 동안 어려운 뒷바라지를 해준 분이다.

(崔 淳 雨 記)